

코로나에 외국인 실업률 최대...3명 중 1명 월 200만원 못 벌어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수 84만 여 명...2년 연속 ↓

고용률 63% '역대 최저'...실업자 38% ↑ '역대 최대'

"외국인 근로자 많은 제조·건설·음식점 부진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외국인들에게까지 불어닥쳤다.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으며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주요국들의 경제봉쇄로 제조업 등이 부진을 겪으면서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임금 수준도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1.8%) 줄었다. 반면 실업자는 7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만9000명(38.2%) 늘어났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증가 폭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실업률 또한 7.6%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보다 2.1%p 상승했는데 상승 폭마저도 증감 비교가 가능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외국인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과 합치면 70%에 육박한다"며 "조사 시점에 건설업 종사자도 마이너스(-)였고 대면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주요국 경제봉쇄로 제조업 분야 고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대비 농업어업(5000명·9.2%), 전기·운수·통신·금융(5000명·37.1%)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2만1000명·-

5.3%), 건설업(-1만명·-10.0%) 등에서 뒷걸음질했다.

연령대로 보면 전년 대비 60세 이상(7000명·11.4%)과 30대(6000명·2.2%) 등에서 증가했으나 청년층(15~29세)에서 1만3000명(-5.9%) 감소했다. 감소한 전체 취업자(-1만5000명)의 대부분이 청년층에서 이뤄진 셈이다. 50대(-9000명·-6.0%), 40대(-6000명·-3.8%) 등도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80만4000명(94.8%)을 차지했다. 이 중 상용근로자는 1만9000명(3.9%) 증가했으며 임시·일용근로자 4만1000명(-12.4%) 감소했다.

취업 시간별로 보면 전년보다 40~50시간 미만(3만2000명·7.5%), 일시휴직(1만4000명·23.0%) 등에서 증가했으며 50~60시간 미만(-5만7000명·-31.7%) 등에서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일시 휴직자가 크게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국적별로 보면 전년보다 아시아 이외(1만5000명·22.0%) 등에서 증가했으며 한국계중국(-3만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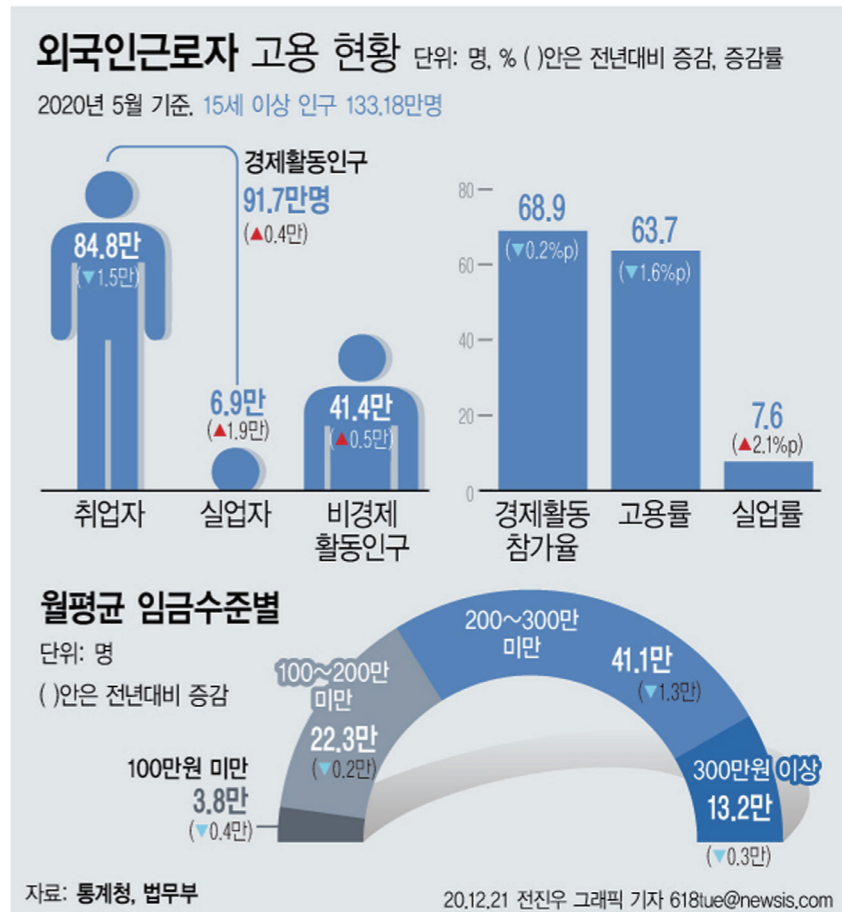
9.0%), 기타 아시아(-4000명·-1.1%) 등에서는 감소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미동포(1만1000명·5.4%), 기타(1만1000명·20.3%), 결혼이민(6000명·10.1%)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방문 취업에서 4만1000명(-25.9%) 크게 줄었다. 방문 취업자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주로 조선족에서 방문 취업이 많이 이뤄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 200만원을 못 버는 비중도 전년보다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80만4000명을 임금 수준별로 보면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 비율은 32.5%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보다 0.1%p 하락한 67.5%였다.

정 과장은 "제조업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근무를 위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가 많은데 올해 코로나19로 제조업 영향이 부진하다 보니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4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000명(1.3%) 증가했다. 활동상태별로는 쉬었음(1



만6000명·19.8%), 육아·가사(8000명·5.5%) 등에서 증가했으며 진학 및 취업 준비(-6000명·-25.9%), 기타

중고차 시장, 코로나에도 7.7% ↑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필요"

1~9월 누적 거래량 296만5000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도 올해 중고차 내수 시장이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판매와 신차 대체 효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 면에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이어왔던 국내 중고차 내수 시장이 올해 코로나19 영향에도 1~9월 누적 거래량 296만500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확대된 가운데 신차 구매력력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로 중고차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O2O 스타트업 외에도 엔카닷컴의 엔카 홈 서비스, 케이카의 내 차 사기 홈 서비스 등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됐다.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진입, 브랜드 인증 수입 중고차 등으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딜러 간 온·오프라인 거래 방식에서 최근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다. 첫차·헤이딜러 등 스타트업, KB차차차·NICE R&C 등 신용정보 및 금융권 기업이 투명성을 강조한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추세다.

신차 판매로 내수 시장에 안착한 수입차 브랜드도 자체 인증 중고차 판매 시스템을 마련해 중고차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증 중고차는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을 판매업자가 다시 매입해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차량의 성능을 인증, 새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BMW·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아우디·볼보자동차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 업체가 나서 전시장과 인증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정비 이력 확인 및

보증 서비스·리스·할부 등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초 관련 규정이 일몰,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증가기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본격 선언하면서 생존권을 쥐고 맞서는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 보호를 무기로 내세운 현대차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양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구매 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표준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 허가제 전환, 허위 매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이전의 사고 및 정비/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입 이후 성능 점검 결과를 소비자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고차 매매업의 영세성, 사업 체계 부족 등을 고려해 최근 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한 완성차 기업과 영세업체가 상생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카톡 지갑 내 '카카오 인증서'로 연말정산 OK

카카오,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사업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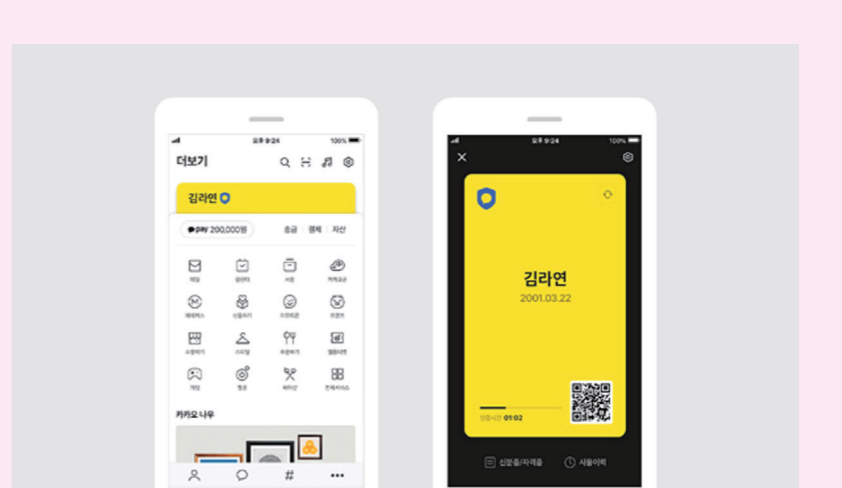
카카오가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카카오 인증서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와 행안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서명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카카오톡 지갑의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갑을 만들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2차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내년 1월부터 정부24와 국민신문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 서명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식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웹 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총 5개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선정

해 202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3개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한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카카오톡 지갑에 담긴 카카오 인증서의 편리함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바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분/자격 증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희기자

SKT, 올해도 음악·영화 선물 쏜다...캐럴 이즈 백 시즌2

2019년 소상공인 음원 무상 지원 후속 행사

SK텔레콤이 2019년에 이어 올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모바일 음원 및 영상 구독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무상 지원 행사를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SKT는 작년 연말연시에 전국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펼쳐진 행사에 소상공인 1만 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캐럴 이즈 백' 프로젝트 시즌2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인택트로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주자'는 컨셉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진행한다.

SKT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연시를 제한적으로 즐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캐

럴 이즈 백' 시즌2 행사를 마련했다. 모바일 음악 플랫폼 '플로(FLO)'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wave)', 보이스 컬러링 서비스 'V 컬러링' 등 모바일 구독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 및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5GX 부스트파크(Boost Park)' 및 T멤버십 제휴 편의점, 음식점,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 매장에 크리스마스 캐럴 매장음악을 제공할 예정이다. 플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50여 개 플레이리스트에서 1,000곡 이상 음원 리스트를 제공하고, 최대 5만명의 고객에게 300회 음악듣기 이용권을 무료 제공한다.

음악듣기 무료 쿠폰은 21일부터 26일까지 발급받아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웨이브'에서는 12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라라랜드', '캐럴',



'그녀(HER)' 등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를 전용 메뉴 화면을 구성해 서비스한다. 유료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웨이브 이용 고객도 관련 콘텐츠를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보이는 컬러링' 서비스 V 컬러링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가족, 친구 등 전파하는 상대에게 즐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캐럴 콘텐츠 40여 개와 함께 다양한 크리스마스 시즌 영상을 제공 중이다.

V 컬러링 캐럴 콘텐츠는 12월 31일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

교촌치킨, 교촌 닭가슴살 도시락 5종 출시

고섬유질·고단백의 한식반찬으로 구성

교촌에프앤비가 새로운 가정간편식(HMR) '교촌 닭가슴살 도시락' 5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촌 닭가슴살 도시락' 5종은 국내산 재료로 만든 나물과 야채, 닭가슴살 등 고섬유질·고단백의 한식반찬으로 구성되어 맛과 건강함을 동시에 잡은 HMR제품이다. '교촌 닭가슴살 도시락' 5종은 '전주비빔밥&정송식 매운닭불고기', '닭가슴살 카레라이스&골드오믈렛', '매콤닭가슴살라이스&버섯볼고기' 닭가슴살, '고구마닭가슴살라이스&매콤큐브닭가슴살', '브로콜리닭가슴살라이스&매콤비엔나소시지'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호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7월 교촌과 업무제휴를 맺은 허답의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허답몰을 비롯해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